

지역 매아리

국민권익위, 내달 14일 정읍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달 14일 정읍시에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이하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이동신문고는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동신문고는 고충해결 통로가 미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각 분야별 전문 조사관이 고충을 직접 상담·처리해주는 제도이다. 상담은 행정분야 전체, 부패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 법률상담(민·형사,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 분쟁, 노동관계 분야별로 이루어진다.

접수된 상담민원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해결하며,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예정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대회의실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하면 해당 분야별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구제역·AI 방역대책 추진상황 점검 대책회의 가져

부안군은 14일 전병순 부군수 주재로 국·관·과·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AI 방역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대책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구제역·AI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약성가축전염병 없는 청정부안 사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또 축산유통과 가축방역팀장이 경기도 안성 및 충북 충주 구제역 발생에 따라 권익현 부안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운영, 거점소독장소 운영, 농장소독 및 방역홍보,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완료, 가금류 사육농가 전담공무원 지정 관리체계 강화, 철새도래지 특별 방역 추진 등 주요 방역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부안군은 구제역·AI 소독약품 1820톤, 생석회 2000포를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며 오는 18일부터 구제역 긴급 접종관련 항체형성을 검사 후 미흡농가에게 행정 조치 할 방침이다.

전병순 부군수는 "구제역·AI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가오는 정월대보름 행사 등 지역축제·행사를 자제하고 관·과·소장 등은 읍면 종합행정 출장시 방역이행 사항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미세먼지, 전기차로 잡는다

정읍시, 이달 28일까지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1인당 최대 1500만원 보조

정읍시가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으로 미세먼지 잡기에 나선다.

시는 미세먼지 없는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모두 70대의 전기자동차 구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0대(7억2,000만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10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민간에서 전기 자동차를 구입 시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며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보조한다고 밝혔다.

희망자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 포털(ev.or.kr)에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를 확인하고, 이달 21일부터 28일까지 기간 중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을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전일까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이 정읍시에 위치한 법인인과 기업이다.

시는 신청자가 보급 계획의 예산을 초과 신청한 경우 내달 6일 추첨



정읍시가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으로 미세먼지 잡기에 나선다.

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2017년도부터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올해까지 완속 충전기 설치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별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17년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을 시작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정읍시 환경과(☎063-539-5702)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우수시 선정... 체감도 도내 1위

정읍시가 2018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우수시로 선정돼 전북도지사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3,000만원을 받는다.

전북도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도내 중소기업 지원 시책 발굴과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14개 시군을 2개 그룹으로 나눠 2개 분야(기업 체감도, 경제활동 진화성) 13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시는 평가에서 경제활동 진화성에서 S등급, 기업 체감도에서 도내 1위인 A등급을 받았다. 또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1기업 1담당제 운영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진섭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우수시로 선정된 것은 모든 공직자들이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정읍과 전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환경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의 일환으로 지난 달 24일 중소기업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를 가졌고 이후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정읍시가 2018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우수시로 선정돼 전북도지사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3,000만원을 받는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통한 이차보전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편익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작업장 내 유해물질 제거 및 낙후시설 개선지원을

위한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사업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특허맵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을 위한 창업 환경개선사업 ▲작업장 내 유해물질 제거 및 낙후시설 개선지원을

/정읍=김대환기자

전국의 애주가 사로잡은 고창 막걸리

느린마을막걸리, 전국 30개 전통주점 판매 '호평'

한반도 첫 수도 고창군의 쌀과 누룩으로 만든 막걸리가 전국의 애주가를 사로잡고 있다.

14일 전국 '전통주 전문점 협의회(대표 이승훈)' 소속 30여 개 전통주점이 지난해 판매 순위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배상면주가의 '느린마을막걸리'가 막걸리 부문 3위에 오르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저온살균 막걸리인 '느린마을 막걸리'는 고창 쌀과 누룩, 그리고 물로만 만드는 생막걸리다. 밥을 찌지 않고 생쌀을 갈아 발효시키는 이른바 '생쌀 발효법'으로 만드는 막걸리로 신선함과 부드러운 목 넘김을 느낄 수 있다. 또 고창전라작물로 만든 평콩새싹 막걸리, 활보리쌀 막걸리, 복분자 막걸리 등도 20~30대 회원으로 구성된 전통주 동호회를 중심으로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

특히 지역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청정 고창'의 이미지가 더해져 신선하고 믿고 즐길 수 있는 명품 막걸리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앞서 고창은 애주가들에게 사랑받는 지역 중 하나다. 특유의 달콤 쌉쌀한 맛을 간직한 고창 복분자주는 매년 우리술 품평회에서 상우권을 놓치지 않고 있고, 바다 건너 중국·동남아·미국까지 수출되며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맑고 깨끗한 지역 이미지를 지키면서 농특산품들이 신세대 기호에 맞게 개발돼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의회, '5·18 망언' 자유한국당 규탄 촉구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가 '5·18 민주화운동 왜곡 공청회'에서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을 규탄하고 사죄를 요구했다.

고창군의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희생했던 5·18 희생자들의 거룩한 민주항쟁을 무참히 짓밟는 몰지각한 행위이며, 이는 일본의 위안부 망언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이미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판단

이 끝났고,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세계사에도 유례가 없는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상황을 두고만 볼 수는 없다"면서 "이는 숭고한 역사를 훼손하려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러 망언을 쏟아낸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을 향해 "국민들이 이룩한 민주항쟁의 정신을 훼손하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고창=김영식기자

6·25참전유공자회 부안군지회, 안보결의대회 개최

6·25참전유공자회 부안군지회(회장 김준석)에서는 14일 행복한 웨딩홀 4층에서 회원 및 가족, 안보단체장 및 사회단체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차 6·25참전유공자회 정기총회 및 안보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2019년 사업계획 등에 대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권익현 부안군수, 김한수 부안군의회 의장, 부안군제대대장 등 주요 내빈들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의 남북화

해무드와 북미대화 등 달라진 분위기를 환영하며, 어떠한 평화도 탄탄한 안보의식이 담보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안보 결의문을 낭독 후 회원들의 만세삼창으로 마무리되었다.

권익현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부안군민과 함께 참전 유공자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나라를 사랑하시는 어르신들의 참 정신을 이어받아 부안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ulberry Wine featuring various gift sets and product image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several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